

‘건강·재미 두 마리 토끼 잡다’

고창 성내면 행복학습센터 줌바&라인댄스반 개강 ‘호응’

고창군(군수 박우정) 성내면이 행복학습센터 ‘줌바&라인댄스반’을 개강했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처음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주민 건강 및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줌바&라인댄스반’을 개강했으며 주민 4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줌바댄스는 신나는 라틴음악에 맞춰 전신운동을 하는 댄스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건강 유지 및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라인댄스는 출지어주는 춤으로 연령층에 상관없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실버라인댄스가 각광받고 있다.

‘줌바&라인댄스반’에 참여한 주민은 “줌바 댄스는 유산소 운동효과도 있고 즐기며 할 수 있어서 스트레서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행복학습센터는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처음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주민 건강 및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줌바&라인댄스반’을 개강해 주민 4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인철 청장 장수경찰서 방문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강인철(치안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15일 장수경찰서를 방문해 협력단체와 직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강인철 청장은 평소 협력치안에 많은 도움을 준 협력단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관성 강력팀장 등 주요반인검거 유공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주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동시에 소통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간담회 후 각 사무실을 돌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창호기자

무주서, 다문화가정 범죄·학교폭력 예방 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14일, 다문화가정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과 한국생활 조기 정착 도모를 위해 무주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주여성 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범죄예방과 자녀 학교폭력 예방 등 홍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유도했다.

윤종섭 서장은 “이주여성 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정착은 그들의 몫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범죄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 적극적인 홍보와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정읍 칠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칠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협의체 사업으로 추진한 38세대(집수리, 의료비 지원, 난방유 지원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 올해 사업과 관련, 겨울철 취약계층 연탄·난방유 지원 사업과 연 2회에 걸쳐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칠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단체장과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들로 구성돼 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면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굴된 대상자들에게는 민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농어촌공사, 해빙기 시설물·공사현장 안전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정동환)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주요 시설물 및 건설공사 현장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지사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주요시설물 및 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품질·안전·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실태, 절토 및 성토구간 해빙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안전사고 위기대응 메뉴얼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동환 지사장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취지에 맞도록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시설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호성동-대자인병원, 상호 협력적 지원 체계 구축 협약

호성동은 15일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하는 상호 협력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대자인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상호협력 기관의 공동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계곤란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병원진료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자인병원 이병관 대표는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채규남 기자

장은혜 권사,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2천만원 후원

평소에 예수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장은혜 권사가 지난 14일 예수병원 권장영 병원장에게 발전기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장은혜 권사는 “최근 예수병원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랑으로 돌보며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저의 작은 정성이 예수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비담으로 후원하게 됐다.”며 “120년에 세워진 예수병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의료 발전과 봉사 활동을 선도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고창서, 청문실 내부고객 인권교육 강화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조사실에서는 경찰관에게 필요한 인권지식과 감수성을 향상시켜 인권지향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사이버교육은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범죄피해자 심리의 이해 등 피해보호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 분석, 수사관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등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있어 인권지식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문실이 중심이되어 전기능간 인권관련 순회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시행중에 있다.

김정아 순경은 “비무용동 등으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피해자 인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재 서장은 “수사권 조정 등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의식 함양이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인권경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동차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